

격려사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 국민과
불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일본
돕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 천명하고, 지난해 3월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발족하여 승가교육의 현대화·체계화를 통해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 종단 최초로 문을 여는 ‘조계종국제불교학교’는 이러한 종단적 원력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하여 세계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행하고,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사찰음식 시연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찰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 포교의
어려움과 종단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도 하면서 미주 지역내 한국불교의
현황과 위상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미하다는 말 이외에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스님들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해외사찰이 교민들 대상이 아닌
현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홍포를 위해서는, 스님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자유자재해야 합니다.**

**종단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
하여 '조계종국제불교학교'를 이곳
화운사에 개원하게 된 것도, 이제는
한국불교세계화를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종단은 2년 과정의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하는 스님들이 종단의 각종 국제**

**행사 통역, 외국인 템플스테이 운영,
해외사찰에서의 포교 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외사찰의 포교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우리 종단이 주관하는
‘세계종교지도자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니 만큼, 사찰
에서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스님들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인스님들은 희망과 책임감을
갖고 부단히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조계종국제불교학교’의 개원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후학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화운사의 노덕스님들과
물심양면으로 늘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화운사 주지 도현스님을 비롯한 화운사**

**대중과 신도들께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학인들을 직접 지도할 학장
무진스님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께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종단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한국불교를
전파하여 인류문명을 화엄의 꽃으로
장엄하기를 바라며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불기 2555년 3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